

하고 시장에 들어가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면서 고성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출동된 일헌(日憲)과 격투 끝에 모두 체포되어, 주동한 김일수(金一壽)는 7개월, 그 외 7명은 4개월의 옥고를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에서 치렀다.

이제 그날의 만세운동(萬歲運動)이 옛이야기가 됨이 아쉬워 주민의 뜻을 모아 의거현장(義舉現場)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탑(塔)과 비(碑)를 세우다.

명시(銘詩)

칠보산(七寶山) 소나무 바람 흥부장날 외친 함성

그날의 만세(萬歲)소리 되어 3.1정신(精神) 승화(昇華)되어

만세(萬歲). 만세(萬歲). 만세(萬歲) 영원(永遠). 영원(永遠). 영원(永遠)

동해바다 성낸 파도

그날의 군중(群衆)되어

호국(護國). 호국(護國). 호국(護國)

서기 1995년 8월 15일

초대군의원(初代郡議員) 전인식(田仁植) 찬(撰)

제7절 명(銘)

1. 정(亭)

1) 영모정(永慕亭)

(1) 주련명(珠聯銘)

신선 배의 신령한 절벽이요 도동의 이름난 곳이로세 / 仙槎靈壁道洞名區

우리 선조께서 가보신 곳 오동나무 심은 정원일세 / 我先祖省楸之園庭

그곳에 재궁과 주방을 마련하고 다른 집도 곁에 지었다네 / 備齋廚之丙舍底傍

이에 강당을 만들어 이 정자에서 열을 기다렸다네 / 遇首構堂永慕是亭

때를 정해 서로 모여 선세의 업적을 이야기했지 / 定期會合講先世業

더러는 한 잔 술도 나누니 화수의 정이 가득했다네 / 間以觴詠悅花樹情